

'3퇴'와 평안

제187기

2014년 7월 24일

'9평 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심도있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했다. 2014년 7월 11일까지 1억 7,077만 명의 중국 민중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성명했다.

꼬마 대법제자의 부시장 '3퇴' 기

[밍후이왕] 중국대륙에서 파룬파파 제자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두 소중한 중국동포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3퇴(퇴당, 퇴단, 퇴대)'를 권하면서 그들이 당초에 중공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한 독한 맹세를 취소하여 '천멸중공' 때 여러 재난에서 생명과 평안을 보장받기를 희망한다.

부시장 '3퇴' 기

[대륙투고] 나는 11세의 꼬마 대법제자이다.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교문을 막 나서는데 며칠 전 내가 진상을 알려 주었던 소녀가 나를 불러 세웠다. 그는 나를 그의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더니 "아버지, 이 오빠가 나에게 '3퇴'를 말해 주었어요."라고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엄숙해 보였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그 소녀의 아버지가 나에게 "너는 파룬궁을 수련하느냐? 그럼 나에게 파룬궁이 무엇인지 말해보렴."이라고 하셨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파룬궁은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공법입니다. 그리고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기적 같은 효과가 있어요. 사부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쨌싼런(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 더욱 좋은 사람, 사회에 유용한 사람으로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지금 대법은 이미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2014년 7월 5일, 시드니에서 1억 7천만 중국인 '3퇴'를 성원

전해졌고, 많고 많은 표창을 수상했어요. 이렇게 좋은 공법이 중국에서는 봉건미신이라는 모함을 받고, 수련이 금지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 대법을 오해하게 되었어요. 대법제자들은 사람들이 대법의 아름다움과 사실의 진상을 이해하기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나의 말을 듣던 소녀의 아버지 얼굴은 온화하게 변했으며 나를 보면서 자애로운 웃음을 지었다. 나는 "아저씨도 탈퇴하세요."라고 간곡하게 말했다. 그는 시원스레 웃으면서 "그래 나도 탈퇴하자!"라고 했다. 내가 "아저씨는 당원이세요?"라고 묻자 아저씨는 "나는 이 시의 부시장이다. 당·단·대에 모두 가입했다."라고 말하면서 친히 가명을 지어 나에게 알려 주었다. 해어지면서 이 부시장은 "꼬마야, 고맙다."라고 친절하게 말했다.

파출소에 가서 한 번에 경찰 넷을 '3퇴' 시키다

[대륙투고] 작년 겨울 어느 날, 다른 수련생과 함께 거리에 파룬궁 진상을 알리려 나갔는데, 진상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파출소에 고발했다.

잠시 후 경찰차 한 대가 왔고 경찰 세 명이 내리더니 나를 애워쌌다. 이때 경찰 한 명이 가만히 나를 한 쪽으로 끌고 가더니 "아주머니,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죠? 평소에 우리도 이 일을 상관하지 않는 데 이번에는 누가 당신을 신고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이때 신고한 그 사람도 다가와 나와 시비를 가리려 했지만 경찰에게

스위스 민중들, 중공의 폭행을 제지하는 행동에 나서다

[밍후이왕] 2014년 7월 5일, 파룬궁 수련생들은 또 다시 스위스 쿠리스에 와서 시민들에게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폭로하고, 중공의 생체장기적출 만행을 제지하기 위한 서명을 받았다.(오른쪽 사진)

쿠리스에 거주하고 있는 피단(Fidan) 부부는 이미 파룬궁 수련생이 당하고 있는 박해에 대해 알고 있었다. 피단 부인은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다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인간성을 상실한 행위이고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 당연히 제지시켜야합니다. 우리들은 혹형을 반대하기 때문에 서명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티베트에서 온 뤄쑹(洛桑)은 "중공이 산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는 건 너무나 엄중한 일입니다. 정말



인간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짐승만도 못한 행위입니다. 중국의 파룬궁 수련생은 당연히 자유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광범위하게 진상을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쫓겨났다. 이 세 경찰은 나에게 "아주머니, 여긴 사람이 많으니 우리 자리를 빼어서 얘기합시다."라고 말했다.

파출소 사무실에 들어서니 모든 경찰이 웃음을 지었고 그 중 한 여성은 "아주머니, 얼른 들어오셔서 몸을 좀 녹이세요. 밖이 너무 추워요."라고 말했다. 나는 의자를 찾아서 앉았다. 그녀는 나에게 "파룬궁을 어떻게 연마하나요?"라고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의 공법은 성명쌍수 공법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며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고덕대법(高德大法)인데 연마를 하기만 하면 득이 된다고 알려주었다. 여성은 "온 몸이 병인데 연마할 수 있어요?"라고 묻자 나는 괜찮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진상을 알려주고 그녀에게 예전에 가입했던 중공 조직에서 탈퇴해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여성은 탈퇴에 동의했다.

한 여성이 나에게 물었다. "아주머니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내가 그녀에게 80이 다 됐다고 알려주자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와, 그렇게 안보여요. 정력이나 기색이 모두 60대로 보이는데요. 파룬궁은 진짜 좋네요. 아주머니, 이젠 집에 가셔야죠. 가족들이 걱정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복도에서 또 여성 두 명을 만났을 때 나는 그들에게도 '3퇴'를 알려 모두 탈퇴시켰고, 그들은 "아주머니,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네 명의 경찰은 나를 파출소 정문 까지 바래다주면서 어디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전반 과정에 경찰들은 모두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나를 신고 온 세 경찰은 나를 데려다 놓고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반 시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는 경찰 네 명을 '3퇴'시켰다.

우울하던 미용사가 행복해지다

[밍후이왕] 나는 집 부근에서 작은 미용실을 꾸리고 있는 미용사다. 영업은 잘 되고 있었으나 나의 몸은 말이 아니었다. 조금만 일하면 현기증이 나고, 온 몸이 물 먹은 솜처럼 기운이 빠졌다. 항상 화가 나오고 우울해 심지어 살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들었다.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 했는데, 약도 많이 먹고 돈도 많이 썼지만 몇 년을 치료해도 효과가 없었다.

2008년, 나와 남편은 어머니 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나는 그때 미용실 영업도 하지 않았기에 하루 종일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갔다 온 후에는 할 일이 없어 집안에 누워 있기도 했다. 하지만 병세는 갈수록 심해졌다. 마음은 갈수록 더욱 우울해져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하루는 어머니의 3차신경통이 발작했다. 사람들은 이 고통을 '천하 제1고통'이라고 한다. 어머니는 너무 아파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 병원에 가니 의사들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먼저 선금 만 위안(약 165만원)을 내고 예약하라고 했다. 어머니는 "예약한 뒤에 많은 시간을 기다려 치료한다 해도 돈만 많이 들 뿐 병이 나을지 모르겠구나."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온 후 어머니는 "10년 전에 고향에서 파룬궁이 유행될 때 국가체육총국에서 조사한 자료를 봤는데 파룬궁을 연마한 후 90% 이상이 건강을 회복했다고 했다. 그때 나도 배웠지만 후에 중공이 박해해서 멈추었단다. 연공 테이프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으니 나는 연마를 계속해야겠다!"라고 말하고는 이전에 보관해 두었던 녹음기와 연공테이프로 연공을 시작했다.

당시 나의 남편은 "이래서 병이 나아진다면 진짜 신기한 일이죠!"라고 말했다. 결국 아주 신기했다. 어머니는 약 한 알 먹지 않고 정말 병이 나았다. 나와 남편은 모두 아주 신기하다고 느꼈다. 나는 국가체육총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한 후 병이 제거되고 건강이 회복된 경우가 98% 이상'이라고 한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후에 중공은 대중 '운동'을 벌여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파룬궁에 멱칠을 했다.

2009년 봄, 하루는 내가 침실에서 나와 객실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데 어머니가 파룬궁의 녹음테이프를 듣고 있었다. 나는 베란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이미 연속 12년간 참가하고 있는 '독일 투오나(Tuona) 문화 축제'가 2014년 7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렸다. 위 사진은 파룬궁수련생들이 공법을 시연하고 있는 장면이다.

에 앉아 있으면서 무심코 듣게 되었다. 모두 무엇 때문에 도덕을 중시하고 좋은 사람으로 되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었는데… 나는 저도 모르게 아주 긴 시간을 듣고 있었다.

나는 곧 어머니의 궤짝에서 파룬궁 책을 찾았다. 어머니는 '전법륜(轉法輪)'을 나에게 주면서 "먼저 '전법륜'을 끝까지 계속 읽어 보아라."라고 말했다. 나는 책을 볼수록 더욱 보고 싶었다. 책을 보는 기간 나는 깊이 잠을 잘 수 있었고, 심정에도 변화가 왔다.

이렇게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게 되었다. 시작하고 어느 날 한 순간은 내 마음이 아주 즐거웠다. 어느 날은 오전 내내 아주 기분이 좋았다. 그 후부터는 하루 종일 즐거운 기분이었다. 퇴근해 집으로 온 남편은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했다. 이렇게 나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정상적인 사업과 생활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2010년 나는 다시 미용실 영업을 시작했다.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으며, 사업은 하루하루 더 좋아져 지금은 하루에 몇 백 위안을 벌 수 있다.(글/랴오닝 성 메이위)

'정치에 참여 한다'와 '반당'에 대해 말하다

[밍후이왕]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을 알고, '3퇴'를 권하는 것을 '정치에 참여한다.' '반당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몇이나 되는 사람이 '정치에 참여한다.'와 '반당'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진정으로 생각해 보았는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설

중국 헌법에는 공민에게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 신앙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민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도 공민은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 이므로 마땅히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정치를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의 특허가 절대로 아니다. 그렇지만 파룬궁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며, 정권을 얻거나 집권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파룬궁(파룬따파)은 불법(佛法) 수련으로서 수련인에게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며, 진선인(眞善忍)을 표준으로 도덕을 승화시키고 반본귀진(返本歸眞)할 것을 요구하는데, 최종목표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고 생사윤회를 초월하여 중생을 자비롭게 대하는 대각자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인간 세간의 당파나 정치조직의 아귀다툼, 심지어 수천만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대가로 하는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이를 함께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공산당을 반대한다'는 설

공산당은 무엇인가? 인류사회에서 보면 그는 바로 일부 사람으로 구성된 한 개의 정치조직이 아닌가? 그럼 그들의 정책결정이 정확할 수도 있고 착오적일 수도 있다. 정확하면 대중은 찬성할 것이고, 착오적이면 대중은 곧 반대할 것인데 이는 아주 정상적이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 정책이 옳거나 그르거나를 막론하고 반드시 칭찬만 해야 한다면 그 사회가 정상이겠는가?

15년 아래, 중공은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줄곧 각종 수단으로 행해 온 탄압을 중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해 이익을 쟁겼는데,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양심과 착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묻노니, 이런 폭력적인 강권적 만행에 대해 우리 여러 사람들이 그

걸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드려야 하겠는가?

오늘날,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는 것은 이미 국제조류로 되었다. 그런데 우리 중국의 국민들은 왜 아직도 자신을 스스로 얕보고 이 자유를 감히 요구하지 못하고, 이 법률의 보호를 요구하지 못하면서, 소수의 사악한 자들이 법률 집행으로 범법을 자행하며 함부로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도록 놓아두는가? 바로 선량한 사람들이 도둑과 강도를 두려워 할수록, 도둑질하고 강탈해도 감히 말하지 못하고 그를 폭로하지 못할수록 그런 자들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지고 창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용기를 갖고 일어나 진상폭로와 반박해로 중공의 포악을 반대하는 이것이야말로 중국인에게 복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바로 파룬궁 수련생들이 '3퇴(퇴당, 퇴단, 퇴대)'를 권하는 목적은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당초에 중공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했던 독한 맹세를 취소하고, 마음속에서부터 자신과 중공(중국공산당)을 분리시켜 '천멸중공' 때 모든 재난에서 생명과 평안을 보장받기를 바라는 것이다.